

<문전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인간이 살면서 출입하는 문이 문전이라예. 실려나도 문전. 실려들어 문전. 백기상상 일르렵 대법천왕 일문전 감상관이라 해서, 우리가 집을 짓으면서 성주풀이를 허면, 우선은 왜 성주풀이를 허냐면, 성주도 잊겠지마는 문전때문에, 문전본을 풀어야만이 그 문전에서, 이 집이 조상님덜 삼맹일 기일 제사 때에 그디 딱 오민 문전에서 딱 올령

“굽게 들어갓당 나오십서.”

영 허고.

문전본을 안 풀어볼면 저기서 차단이 돼서 절대 안트레 못 들어온덴 허주게. 게민 식게 멩질을 안네서 못 먹영 간덴허고. 그런 것도 잊고. 또 옛날부떠

‘문전 풀른 공스가 잊우과.’

영 허는 법이라.

오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거라. 베끼디서 좀 잘 순 잊어. 문전 들어와야 안네서 즘을 자지. 집안 안네, 문전에서 모든 곳인 액을 다 막아. 그래서 정월 나면 일 년에 한 번씩 문전제를, 문전궤시를 허는 게 다 그 이유라예.

일 년 열 두덜 액도 잊주만은 문전으로 곶은 거 들려들게 맘센 허영. 경 허민 이제 그런 것도 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잊우다게.

이번엔 문전본 풀쿠다 예.

문전하르바님은 해만국, 문전할마님 들만국, 문전아바지 남선고을 남선비, 문전어머님은 여산고을 여산부인.

남산광 여산은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넘어서 남녀간에 부베간을 무엇구나. 부베간을 무엇는다 애긴 낳는 게 아들 일곱 성제가 솟아났구나. 이거 일곱 성제가 솟아나니 그 해에 연삼 년 이 고을에, 남선고을이 흥년이 들어서, 흥년이 들어서 떼 굶을 지경이 돼여가니,

흐를 날은 남선비가 허는 말이, 애기덜그라,

“너네덜 불미불산 아약삼성 신산곶을 도올라서 곤은 낭을 비어다가 상선 중선 베를, 하선 베를 지어노라.”

경 지어노니, 이제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허는 말이,

“경 허지 말양 초광메역 전베독선 신경 강, 장사 강 양석을 반양 읍센.”

허난

“기영 허렌.”

베에 전베독선을 시켜 놓고 베대봉을 허니, 과도치어 절지어 브름 가는 양 물 가는

양 가단보니, 오동나라 오동고을을 들어잡네다. 들어가네 베잘도에 간, 베를 묶어 놓고 느런. 어딜 강 장사처를 허코 허단보난, 흐뎡 이시난 노일국에 귀일이 떨어 석차 오치 수건을 쓰고 흔들만들 걸어 오명

“어디서 나온 선비 양반입네까?”

허난,

“나야 양반이라고, 선비라고 할 수 잇입네까만은 우리 남선고을에 연삼 년 흉년이 들어서 초광 메역 전배독선을 허영 시경 오랑 장사허젠 오랏수다.”

“머질 딴 정헛테가?”

“아이고, 못 정헛우텐.”

허난,

“게건들랑 우리 집이 강 멧언 장사헛서.”

허난, 오꼳 남선빈 이제 노일국이 혼탕에 빠진거아니라. 빠지난, 간보난, 집은 존디 카부텐 허단보난, 비주리 초막살이에 거죽문을 들양 살았어. 에이 경해도 멧영허는 디렌 허난 거기 강 멧이젠. 멧영 흐루 이틀 연사홀 살아가니 흐 텨 넘곡 석 텨 넘곡 일 년 넘곡 연삼 년이 돼어가.

초각 메역 풀양 양석 상 가젠허단 보난, 초광 메역도 온데간데 엇고 이젠 모든 게 다 온데간데 엇언. 체죽단지 순꺾락 올려놓고 뭇똥뿌리에 등 굽영 흐 사홀 만 이시민 죽기사 마련이로구나.

이젠 여산고을 여산부인님이 허는 말이, 연삼 년을 기다려도 아니오난, 아들들 곁아,

“느네들 신 일곱 베 즐아 노라. 신 일곱 베 즐아 놓고 불미불산 아약삼성 올라 강 끝은 낭을 비어단 베를 짓어도라.”

“무시거 허쿠과?”

“느네 아방 좃으레 강 오키여.”

“죽어신지 살아신지 알아지쿠젠?”

허난,

“경 허민 나가 강 오마.”

왕대 막뎡이에 상동나무 용얼력질 돌아메영 바당에 느런 초 편 이 편 제삼 편을 들러뻬명

“살았건 산 혼정, 죽엇건 죽은 혼정으로, 죽엇젠 허건 머리카락이라도 올라옵서.”

영 허난, 보난, 머리카락도 흐나 엇고, 이젠 살았구나.

그 법으로 옛날은 바당에 강 저세상 가민 뒤에 산뒤 집으로 사름을 만들양, 형상을 만들양 등에 지어근에 강 처서영갯기 들러받양 바당에 반 이상 들어강 이제 문전본을 풀니다. 옛날은 예 바당에서. 바당에도 가민 물에 죽은 어른덜은 그 문전본을 풀어낫우다. 경 헨 혼을 불르는 겨우다. 이때 이 대목이 나오는 거 양. 경 허난 허던 법으로.

“느네 아방 살았저.”

“계건 강 읍서.”

허는 말이,

“어머님아, 우리도 가쿠다.”

“야네들아, 우리 문딱 가당보민 우리 집이 씨멜죽 헤불민 어떻허느니, 나 강 오마 느네들이랑 잇이라.”

“나, 돛을 들앙가건덜랑 올 때랑 저 돛을 들앙 오건 어떻인가 허고, 경 아니민 아닌 가 생각허라.”

영 허난, 어머님은.

베도 타고 파도 타고 절 지치어 브름 가는 양 물 가는 양 절 가는 양 가단보니 오 동나라 오동고을을 들어 강 베잘도에 내련. 동서막금이 뒤텔구나.

아, 잇이난, 지장밧디 새들언, 역력허고 똑똑헌 녹두생이가 허는 말이,

“주어, 저 새! 주어, 저 새! 요놈에 생이덜아, 저놈에 생이덜아, 느네덜 지장꼐 다 흘타먹어불민 우리 다슴어명신디 욱 든텐.”

허멍.

“남선비 욱은 깐에도 노일국이 혼탕에 빠지언 체죽단지 숲꺾락 올려놓고 혼 사흘만 잇이민 죽기사마련이여.”

남선비엔 허난, 귀가 오짝허영

“야, 애기야, 꺾사 곶은 말 더 곶으라.”

“나 뒷엔 안 곶안.”

“나 계민 돈 닷냥 주마.”

“계건 알앗우다.”

“나는 지장밧디 새 드리는 애기우다. 이 새 저 새 말 좋은 영미새야, 남선고을 남선 비 욱은 깐에도 노일국이 혼탕에 빠지언 체죽단지에 숲꺾락 올려놓고 혼 사흘 잇이 민 죽기사마련이여.”

“아이고, 어딜로 가느니? 요 제 넘고 저 제 넘영 가당보민 비주리초막살이 잇우다. 거죽문을 돌앗우다.”

요 제 넘고 저 제 넘영 가단보난 비주리 초막살이 잇언, 그디 가난,

“질 넘어가는 나그네우다. 밤도 뒹여가고 이슬이나 피행가쿠텐.”

허난, 문 여는 건 뒹려보난, 아이고, 남선빈 이제 말이 아니로구나. 눈도 어둑어불 고, 큰각시 와도 몰르고, 영 허난 이젠,

“뒹려봅서. 우리 어디 주인, 나그네 앓을 디가 잇우과?”

“나그네라고 집을 지영 텅깁니까, 무똥이라도 빌립서.”

“경 험서.”

앗안. 헤놓고 베고프난,

“양 솟이나 빌립서. 밥이나 혼때 행 먹게.”

“정지에 강 봅서.”

“정지에 강 솟뚜쟁일 올안보난, 체죽만 쉼 먹어나난, 체죽이 닷말은 늘어시난, 앞밧

디 강 삼수세기 해단 북북하게 싯저뵤 나주 영산에서 앓엉 간 초나룩으로 밥을 허연

“아이고, 주인 몰른 공스가 잇습네까. 아주바님 밥이나 먹읍서.”

“아이고, 무사 날궤지 생각헛데가?”

흔 적 먹고 두 적 먹엉 밥상 물리멍 비새 곶이 울어간다.

“옛말이나 곶읍서.”

“나도 옛날에 남선고을에서 살 땐 이런 시절이 잇엇우덴.”

허난,

“나, 여산부인이우덴.”

허난, 그때엔 어떻 헨 오랏인고. 이제 만단 허여간다.

노일국귀일똥은 아랫녘에 김서방네 소장집이 강 이녁이랑 베 터지게 얻어먹엉오 단 체 혼썰 밥은 아침에 담아오란, 올레에 들어사명

“야, 이놈이 즈석아 저놈이 즈석아, 이거 왕 말아가렌.”

대답을 안허고 이약 소리만 나난,

‘이거 또 넘어가는 술칸나인 허당 말 곶았구나. 히야까시 허엿구나.’

문 열멍 허는 말이, 문을 박허게 올안보난, 우리 여산궤을 여산부인 오랏젠 허난, 아이고, 그땐 노일국귀일똥이 엇인 아양을 부렁

“아이고, 성님 어떻헤연 읍데가?”

여산부인이 허는 말이,

“읍서 가게.”

“아들 일곱성제 기다렸우다. 목 놓양 기다렸우다.”

가젠허난, 노일국귀일똥이

“아이고, 나도 가쿠다. 나 가근에 양 물 부름시, 때 부름시도 허쿠다.

“우리 집이 가민 아들 일곱 성제이시난, 물 줄 사름, 밥 헐 사름 다 잇저.”

하도 성화에 못 이견, 이젠

“경 허라. 계건들랑 가게.”

삼부처를 출런, 베잘도엘 느려산 주천강 연못가를 근당허니

“성님 읍서. 우리 몸모욕이나 허영 가게.”

“경 허라. 아이고 아시부떠 먼저 곶으라.”

“설운 성님아, 촌물도 우아레가 잇는 법이우다.”

“성님 먼저 곶읍서.”

흔 번 밀고, 두 번 밀고, 세 번차 밀언. 노일국귀일똥은 여산부인 자락허게 등으로 미난에 물러레 흑허게 거스로 들어가난, 쉬운테자 수페머린 곶곶 산산 흠어지어가는구나.

“느, 나 빠주와 뵤 값주마는, 우리 집이 가민 아들 일곱성제 이시난, 알아볼 도리가 잇일겨여.”

가네. 남선비신디 여산부인 행세를 허연.

“그년 물러래 빠주와똥 오랏우다.”

“잘허엇저. 그 년 따른 연삼 년 고생을 헨 거 생각허난 치가 떨린덴.”

허난, 어리석은 남선비 노일구귀일똥 베를 타고 가는구나.

아들 일곱성젠 아바님 어머님 오람시카부덴. 베잘도에 느려사는구나. 먼 정에 베려 보난, 베가 오라가난, 아이고, 어머님 탄 베에 돛이 아니로구나. 영 헤영 가는디, 역력허고 똑똑헌 녹두생이가

“주어, 저 새! 주어, 저 새! 아바님은 느네 아바지여만은 어머니는 니네 집이 신세 먹플 일이로구나. 주어, 저 새!”

허멍 놀아나부난,

“참 케이한 일이로다. 큰 아덜은 띠를 벗어 드릴 놓고, 셋아덜은 두루막 벗언 드릴 놓고 세 번차는 저고릴 벗언 드릴 놓고, 네 번차는 바지 벗어 드릴 놓고 다섯 번차는 행경 벗어 드릴 놓고 으섯 번차는 신을 벗어 드릴 놓고 일곱 번차는 칼선드릴 노니, 무섭고 서꺼운 일이라. 베가 들젠 허민 뱅뱅 돌고 뱅뱅 돌멍 나가가난, 형님 네가 허는 말이,

“야, 설운 나동생아, 부모님네 오는디 칼선드리가 무시거니? 칼선드릴 거두우라.”

칼선드릴 거두우난,

“아바님아, 느립서. 어머님, 느립서.”

허난,

“어머님 행색이 말이 아니우다.”

“나, 느네 아방 좃으레 간 오단 보난 세염이 다 서꺼지고 영 헤엇젠.”

허난, 아이고, 그때에건

“어머님이 압이 삼서.”

“난 몰르키여.”

“계건 아바님이 압을 삼서.”

눈 어둑은 아방이 구짜 집을 좃앙 들어간다. 간 오단보난, 어느 건 밥 헐 솟디고 어느 건 국 헐 솟디고 어느 건 쫄 향이고, 어느 건 물 향인줄 몰르키여. 문딱 ㄹ르천 “어머님, 경 세염 서꺼집데가?”

아이고, 이젠 문딱 ㄹ리쳐되똥. 밥을 허는디 허난, 밥 헐 솟던 국을 헨 앓고, 국 헐 솟던 밥을 헨 앓고, 아방신디 갈 밥상은 아들덜신디레 가고, 아들신디레 가는 밥상은 아방신디레 간. 이거 아멩해도 이상허덴. 눈치가 이상허난, 이젠 노일국귀일똥은 께를 헤여간다.

흐를 날은 남선비가 저 동문베끼디 일천선비 일만선비 바둑 골페 놀이, 바둑 장기 허는디 강 노념놀이 허당 오라가난, 영 베려보난, 오라가난, 그때엔 노일국귀일똥

“아야, 베여. 아야, 베여.”

허여가는구나.

아이고, 이제 뱅뱅 둥그러가난,

“나, 저 어른 따른에 연 삼년 고생허단 죽을 병이 걸린 생이우다.”

“아이고, 어땡허민 조코.”

허난,

“어디 강 문점이나 허여봅서. 죽을 병이나 걸렸이나. 살 병이나 걸렸이나.”

“어딜로 강 보민 웰건고?”

“저 올레 나상 앞담 엠에 강 보민, 푸는 체 쓴 할망이 앓았우다.”

“경 허렌.”

남선비 가는 사이엔 노일국귀일뜰은 셋담 넘영 가네 툽허게 썬 앓았이난,

“아이고, 여기 문점허는 어른 누게파?”

“나우다.”

“아이고, 우리 여산부인 아파시메 문점을 헤봅서.”

손가락을 오그려 폐완 갑자 을축 말축 허난,

아따, 춤, 요 점쟁이,

“아들 일곱성제 납데가?”

“나수다.”

어이, 춤 이 점쟁이 잘 알았구나.

“이 애기덜 엘 내어 먹어사 신병이 좋을 듯 험네다.”

돌아오난에 험 말이,

“무시거옴 굴읍데가?”

“아이고, 이 애기덜 엘 내어 먹어사 병이 좋덴허연.”

“아이고, 경 허건 혼 밧디만 더 들어봅서. 혼말에 지느냐 아니 지느냐.”

“어디 가민 잇인고?”

“저 올레 썩 나사은에 강 뒷담 넘영 가민 샷갓 쓴 중이 앓아실거우다.”

올레로 가는 사이엔 또, 뒷담 넘영 혹허게 강 출령 앓안,

“여기 문점허는 어른 누게파?”

“나우다.”

“아이고, 우리 여산부인 아파시메 문점을 헤봅서.”

손가락을 오그려 폐완 허난,

“아들 일곱성제 납데가?”

“예. 나수다.”

“이 애길 엘 내어 먹어사 살쿠다.”

혼말에 지엇구나. 돌아오란 허는 말이,

“무시거옴 굴읍디가?”

“가난, 혼말에 툽 지헌걸.”

“계건덜랑 허나랑 씨유전으로 놓아두고, 애기 으섯 개 애 내어 먹고, 애 내어 먹영
혼베에 세 개 네 개 나민 일고 으담성제가 웹네다.”

거난, 어리석은 강림인 경 허렌 허연, 조왕에 강 장도칼을 앓안 청싯들 백싯들 앓아
내영 스통스통 골았이난, 저 올레 마고할망이 오랑보난, 남선비 칼 골았이난, 불 빌

레오난, 남선비 칼 곶앓이난,

“야, 그 칼 무시거 허젠 곶앓이냐?”

허난,

“우리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아관, 이 아덜덜 엘 내어먹어사 뽕이 존덴 험디다.”

“아니, 이것사 무신 말인고.”

할마님이 혼비백산 허연 올레 간에

“야네들아, 느네 이디 앓앙 신 삼을 즈르가 어디시니? 느네 아방은 느네 어떻 아프난 느네 엘 내어먹어사 뽕이 존덴 허난 장도칼을 곶앓젠.”

허난,

“게메 우리 어떻이민 좋주만은, 우리어떻이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안네주만은, 게난 오단에, 죽은아시가 똑똑허난,

“성님네 랑 다 사십서. 동·서방으로 상 나가 불르건덜 랑 그때랑 동서방으로 와라차 락 놀러듭셴.”

허난,

“경 허렌.”

“아바님아, 그 칼 무시거 허젠 곶앓수과?”

“느네 어떻 아프난, 느네덜 엘 내어 먹어사 느네 어떻 뽕이 존덴 허난, 칼 곶앓젠.”

허난,

“아이고, 아바님아, 혼 번에 혼나 썩만 죽여도 으섯 번을 일곱 번을 애 아파사곡 일곱 번을 지게에 낀 져가고, 테역 병덩이도 일곱 겹 일뤄삽니다. 나가 강 성님네 문 딱 애 내영 오크메 아바님 그자 나 혼나만 허민, 혼번 애 아프곡 혼번 문으민 말 일이우덴.”

“경 허렌.”

장도칼을 앓아내언, 불미불산 아야삼성 신산곳을 도올란, 테역단풍 만리장에 좋은데 앓앙 비새곶이 우노렌 허난, 산신백관 산신대왕님이 꿈에 선몽을 드려

“야네들아, 너네들 비새 곶이 울지말앙 흐꿈 이시민 산토세기랑 느려오건덜랑 씨유전으로 내어두곡, 뒤에 오는 느릴 잡아보민 새끼 으섯 모리 베엇이난, 애랑 내어놓고 퀘기랑 멩게낭 타단 불에 구웁 먹영 애를 앓안 강 보민 알아볼 도리가 잇일로구나.”

흐꿈 잇이난, 깨난 보난 꿈이라. 아닌게아니라 흐꿈 잇이난에 산토세긴 느려오난 씨유전으로 알려레 느류와두곡, 뒤에 오는 느린 잡안보난 새끼 으섯 모리 베엇구나. 애는 문딱 내어뉘 멩게낭 불 살라 놓고 구웁 익어시냐 혼 점, 설어시냐 혼 점 문딱 먹어놓고 집이 들어 간

“성님네랑 올레 사십서. 어머님아, 성님네 애 내영 오랏이메 이거 먹영 살아납서.”

경 허렌 헨. 이젠 살아납셴 허연. 간 들어가난,

“느 앞서서 느네 성들 어떻 애를 먹느니, 늘랑 나가볼라.”

나오멍 죽은 아들은 손가락에 춤을 불란. 창고망을 터주언 내완, 창고망 베깃딜로

베려보난, 입바위에 피만 불긋불긋 불르멍 자리 알려레 문딱 묻어두고, 흐뎡 이시
난,

“아이고, 호나만 더 먹어시민 이제 살아질로구나.”

죽은 아들이 들어 간,

“어머님아, 알아수다. 아이고, 이제도 즈식은 다시 나민 즈식이주만은, 부모는 혼 번
가민 못보는 게 부모님이난, 경 험서.”

들어간.

“게민, 어머님, 마지막으로 니나 잡아정 죽으쿠다.”

“야, 중병들엉 이 시 저 시 허는디 니 아니 잡나.”

“자리나 치와똥 죽으쿠다.”

“야, 이 시 저 시 허는 디 자리 아니 치운다.”

자리 아렐 확허게 걷언보난, 자리 아렐 문엇구나.

“설운 성님네야, 혼정이 잇건덜랑 동서남북으로 돌려듭서.”

와라차락 돌려들어간, 노일국귀일이뜰 죽을로구나. 쉬운 데자 수페머릴 헤여놓고
돋단 보난, 디딜팡에 이녁냥으로 이녁머리에 목 걸렁 죽엇구나. 아들 으섯 형제 애
를 앓안 지붕상상 조추모루에 올라간,

“다슴애기 들양 사는 어른들 우릴 빵 정 다스립서. 이게 다슴 테가 아니고 무시거
파.”

이 년 저 년 어디 가신고? 좃아당 포신을 허젠 좃단보난, 디딜팡에 강 이녁대로 목
걸렁 죽어시난 곳어다 뉘, 마당 한가운데 뉘에 포신을 허젠, 쉬운 데자 수페머린 돌
라단 저 바당더레 데끼난 듄북으로 환생을 허여가는구나. 감테로 환생허고, 듄북으
로 환생허연. 눈은 돌라단 데껴부난, 천리통이로구나. 귀는 돌라단 데껴부난 만리통,
코는 돌라단 데껴부난 침통이로구나. 입은 돌라단 데껴부난 합저로구나. 젓은 돌라
단 데껴부난 굴멩이로구나. 베따진 돌라단 데껴부난 가오리로 환생허는구나. 베또롱
은 돌라단 데껴부난 구쟁기 딱살로 환생헌다. 손톱 발톱은 돌라단 문 뺨 데껴부난
금북 딱살로 뉘어간다. 또꼬냥은 돌라단 데껴부난 말미잘로 환생허여 간다. 남선비
좋아하던 건 데껴부난 대전복 소전복으로 환생을 허여간다. 손은 돌라단 데껴부난,
세소롱이로구나. 발은 돌라단 데껴부난 따비로구나. 양 가달은 돌라단 데껴부난, 어
편 사름은 디딜팡을 놓앗덴 허고, 어떤 사름은 저 울레 정냥을 놓앗덴 험네다. 영
허영 이제도 모인 들 앓안 데껴부난 돛도구리로 환생을 허엇구나.

아이고, 이젠 문딱 처단을 허여두고, 어머님을 좃아오젠 탄 온 배를 타 앓언 브름
가는 양 절 가는 양, 파도 치어 절 지어, 오동나라 오동고을을 들어삿더니만은, 배
를 대어간 어떤 늑신네가 오멍, 할마님이 오랑 허는 말이,

“아이고, 곱닥헌 애기들 어디서 오랏인고?”

영 허난,

“우린, 남선 고을서 오랏우다.”

“야, 우리 노일국귀일이뜰 그 디 가신디 어뎡이나 살암신고?”

그때엔 이 놈에 늙은이 저 놈에 늙은이. 웨딸이 우리집이 신세 깎구젠 허엿구나.

영 허난, 허는 말이,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잇는 곳을 대렌. 아니 대민 죽이켤.”

허난, 간 보난, 주천강 연못가라, 대천바당이로구나.

“아이고, 이젠 어떻허민 좋으리. 형님네랑 여기서 물 펴십서. 날랑 서천꽃밭 들어강 살아날 꽃, 피 오를 꽃, 말 곶을 꽃 허고, 이제 또 바당에 강, 승에치를 잡앙 오쿠 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렌.”

허여두고, 아신 올라가부난, 서천꽃밭더레 가부난, 으섯 형젠 한박, 족박을 앗안 물을 퍼본들 그 물이 퍼질지야. 앗안 비새 곶이 옮겨가는구나. 아이고, 족은 아들은 승에치를 헤여놓고, 올라가네 하나 두 개 세 개, 세 곶 헤여놓고, 승에칠 잡아 놓고, 서천꽃밭디 간, 살아날 꽃, 피 오를 꽃, 말 곶을 꽃, 뻐 오를 꽃, 조근조근 헤여 난. 느려사단 보난, 느려 살 수가 엇엇구나. 웨려보난, 광세가 앗안 시난,

“느, 날 시꺼다 주라.”

“시꺼다 주민 뭘 줄티?”

허난,

“시꺼다 주민 승에치를 주마.”

흔 번 광허민 하나 주고, 흔 번 광허민 하나 주고, 아이고, 마지막은 광허민 줄거 엇이난, 광허난, 그뎨 무릎에 이거 돌려단 데껴부난, 그것으로 환생을 지엿습네다.

영 허난, 오란보난, 형님넨 울엄고,

“멩천 곶은 하늘님아, 우리 어머니를 살리켤 이 물을 브뜨와 줍서.”

이 물을 브뜨와 보난, 어머니가 너무 밀착 웨엇구나. 부정 서정 영물 영정 다 신게 여두고, 살아날 꽃, 피 오를 꽃, 말 곶을 꽃, 슬 오를 꽃, 조근조근 올려 난 허는 말이,

“어머니야, 즈식인 매가 아니고 어머니 살아남셨 허는 매우다.”

삼세 번을 두드리니 어머니가 와들랭이 일어나멍

“아이고, 물 아래서 봄 줌이사 너무 오래 자졌구나.”

영 허니. 어머니 누워난 디 내불리야.

“성님네랑 어머니 누워난 디 문딱 깎습서. 날랑 어머니 수발을 험시크메.”

어머니 얼엄시카부덴 옷을 입져간다. 조근조근 다 헤가는디 아니, 마지막엔 웨려보 난, 성님넨 아시 생각은 아니허고, 어떻 눈에 지네만 문딱 앗앙 허난, 족은 아들이 용심이 난게 손주먹으로 시리를 모다 논 걸 바락허게 박으니 그 법으로 시리고망 상고망은 가운데 고망 크는 법이우다. 영 허여두고,

“어머니야, 물 아래서 너미 오래 자시메 조왕할망으로 불 숭으멍 얻어먹읍서.”

“경 허라.”

청제 장군, 백제 장군, 흑제 장군, 터신 지신 물로 지신 츠질허고, 똑똑허고 역력헌

죽은 아들은 일문전 감상관 츠지웨다. 어머니는 조왕 츠집네다. 아바님은 저 올레 정상질기 츠집네다. 노일국이귀일이뜰은 첫간 츠질허영 옛날은 통시광 조왕은 멀리 멀리 헛우다. 두 씨앗이엔 행 멀리멀리 헛우다.

경 해도 조왕에건 곳인 거 문딱 도통드레 가도 어떻 아니허주만은 도통에게 검질가 락 하나라도 조왕드레 오민 집안 난리 국이 난리 나는 법입네다.

영 허영 오늘은 올려두고, 난수생 본수생 시주낙형 다 신폴어 올렸습네다. 이 집안 안네 곳인 액년이랑 다 동서남북으로 오는 액년들 문딱 막아줍서.

